

어린이공연의 내용, 장르, 원작유무가 공연 흥행에 미치는 영향: 등교기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태희¹, 신형덕^{2*}

¹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²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The impacts of theme, genre, and existence of originals on the number of visitors of children performance: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school periods

Tae-Hee Kim¹ and Hyung-Deok Shin^{2*}

¹Art and Culture MBA, Hongik University

²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공연의 내용, 장르, 원작의 존재 여부가 공연 흥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학기 중 주중으로 정의되는 등교기간과 그 밖의 미등교기간으로 분류하여 어린이의 등교기간 여부가 내용, 장르, 원작유무에 대해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판타지아 극장에서 2010-2011년에 무대에 오른 954회의 공연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한 결과 유희적 내용, 뮤지컬 장르, 그리고 원작이 존재하는 공연은 그렇지 않은 공연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현상은 원작 유무를 제외하고 등교기간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린이공연의 흥행 요인은 등교기간과 미등교기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impacts of theme, genre, and existence of originals on the number of visitors of children performance. Especially, we focused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school periods with these variables. Using 954 performance data between 2010-2011 at Fantasia Theater run by Bucheon Culture Foundation, we found that entertaining performance, musical performance, and performance with existing originals had more visitors than others. Also, these impacts strongly existed during school periods. In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school period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for the success of children performance.

Key Words : Children performance, School periods, Number of visitors

1. 서론

최근 어린이와 관련된 산업이 성장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시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체험이 어린이의 인성과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감성지수(EQ; emotional quotient)가 주목을 받으면서 어린이를 공연장이나 미술관에 데리고 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 문화예술은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교육방법으로 활용되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어린이 문화예술도 해마다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연극부문에서는 2010년 국내 실연된 전체 연극공연 가운데 5분의 1이었던 어린이·청소년극이 2011년에는 3분의 1로 증가할 정도로 어린이 문화예술의 입지가 점차 커지고 있다[1].

이렇듯 어린이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어린이 관객개발에 대한 인식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연을 선택하여 찾아오는 관객을 고객(client)으로

*Corresponding Author : Hyung-Deok Shin(Hongik Univ.)

Tel: +82-10-3742-4700 email: shinhd@hongik.ac.kr

Received July 15, 2013

Revised October 9, 2013

Accepted October 10, 2013

여기 그들이 가지는 욕구와 동기를 파악하여 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흥행에서 성공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인데[2], 성인 관객에 대한 연구는 영화 흥행에 있어서 배우와 감독, 특수효과, 원작 등 영화의 특성이 관객의 영화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3-6].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린이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어 [7,8])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흥행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린이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 부진의 상황에서 어린이 문화예술의 흥행 성공요인을 살펴보고자 어린이공연이 연간 진행되는 부친문화재단 판타지아 어린이극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린이공연의 특성이 관객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전개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일반적인 공연의 특성을 구성하는 내용, 장르, 원작의 존재 여부가 흥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어린이공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어서 어린이공연의 흥행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공연시기, 즉 등교기간과 미등교기간의 의의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른 가설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표본과 가설 검증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 시사점을 설명한다.

2. 선행연구와 가설

2.1 어린이공연의 정의와 대상

공연은 연극이나 무용, 음악 등을 무대와 같이 관객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연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연자가 관객과 직접 만나는 현장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공연이 관객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장르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하다[9]. 어린이공연은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공연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 모두를 지칭하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전문배우가 속한 극단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일컫는다[10].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아동극, 동극, 아동연극, 어린이극 등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7].

이러한 어린이공연은 좁은 의미에서 공연 체험을 통한 교육을 내용으로 하지만 전문극단들의 새로운 시도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공연의 내용이나 형식의 제한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공연의 대상은 상황에 따라 아동 또는 어린이로 표현될 수 있는데, 오판진[8]

은 아동을 유치원에서부터 10세까지의 5-10세 정도로 규정하였고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연령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 청소년을 지칭하는 연령이 13-18세인 것을 감안하면 스스로 관람이 가능하지만 성인보다는 할인된 요금을 부과하는 3세-12세의 관객을 어린이 관객이라고 보는 것이 관행이다.

2.2 어린이공연의 분류와 흥행과의 연관성

2.2.1 어린이공연의 내용

어린이공연도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 분류기준도 일반적인 공연의 분류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어린이공연은 유희적 내용과 교육적 내용, 그리고 교훈적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희적 내용은 재미를 지향하는 어린이의 취향을 반영하여 공연화한 것으로[11] 단순히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기 위한 버블쇼나 마술쇼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어린이 공연은 성인공연과는 다르게 다양한 교육적 또는 교훈적 내용을 갖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눈높이와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 문화예술의 실제 구매자인 교사나 부모는 교육활동의 방법으로 예술을 활용하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를 지향하고 있다[2]. 이처럼 동일한 원작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공연이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공연의 형식과 결말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의 내용은 중요한 공연의 특성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공연의 내용이 유희적인 경우 교육적 내용이나 교훈적 내용에 비해 공연이 가볍고 즐거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 관객의 선호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공연의 내용에 따른 관객 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교육적/교훈적 내용보다 유희적 내용을 가진 어린이공연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2.2.1 어린이공연의 장르

어린이 공연을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으로서 장르를 들 수 있는데 심상교[7]는 어린이공연을 재현의 수단에 따라 대사극, 동시극, 인형극, 의인극, 가면극, 무언극, 음악극, 독백극, 그림자극, 조합극으로 구분하고, 재현의 방식에 따라 서사극, 심리극, 종교극, 교육연극, 학예회극, 전문극단극, 각색극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보다 단순하게 분류할 때 크게 연극, 뮤지컬, 인형극, 음악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뮤지컬과 음악극은 노래 가사

와 스토리의 포함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서 음악극은 연주와 해설만 포함되고 뮤지컬은 노래와 스토리라인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공연이 스토리와 노래를 포함했을 경우 스토리만, 또는 음악만 포함하는 경우보다 흥행 요소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연극이나 음악극, 인형극에 비해 뮤지컬의 성과가 높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연극/음악극/인형극에 비해 뮤지컬 장르의 어린이공연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2.2.1 어린이공연의 원작유무

세 번째의 기준으로서 전래동화나 창작동화 등 문학작품이나 전설 등의 원작을 기반으로 한 원작물 공연과 해당 공연만을 위해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낸 창작물 공연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영화시장에서는 풍부한 소재와 기존 팬을 확보하기 위해 만화를 원작으로 삼거나[12] 베스트셀러의 인기와 서사를 가져오기 위해 소설을 원작으로 삼기도 하고[13]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게임을 원작으로 삼기도 한다[14]. 시각적 자극에 익숙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문학소설보다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공연이 더 친숙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 문학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아동영화의 절반 이상이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11]. 어린이공연에 있어서도 관객이 잘 아는 원작을 바탕으로 공연할 경우 안정적인 관객 반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연들이 문학이나 전설, 설화 등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작이 있는 어린이공연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공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기존의 원작이 없는 경우에 비해 기존의 원작이 있는 어린이공연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2.3 어린이공연의 시기

시기에 따른 공연의 분류는 크게 등교기간 중 진행되는 공연과 미등교 기간 중 진행되는 공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등교기간은 학교 및 보육단체의 수업이 진행되는 학기 중의 주중을 의미하고 미등교기간은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방학과 주말을 의미한다. 주중과 주말의 여가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가운데 관광객의 축제참여동기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중관광객은 축제참여에 있어 가족화합추구를, 주말관광객은 탈 일상 문화추구를 주된 동

기로 삼고 있다[15]. 그리고 주말의 텔레비전 시청 패턴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은 주말의 여가시간을 가족 나들이나 문화 활동에 투자하고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은 휴식 및 텔레비전 시청에 여가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방학은 여름과 겨울 중 가장 덥고 추운 시기에 교사와 어린이 또는 학생 모두가 수업을 하지 않고 쉬는 기간인데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및 보육단체에서는 대개 7월 20일경부터 8월 20일경까지를 여름방학으로, 12월 20일경부터 1월 20일경까지를 겨울방학으로 한다. 방학은 영화의 흥행 등 문화예술산업에 영향을 미친다[17]

본 연구에서는 등교기간과 미등교기간에 있어서 어린이공연의 흥행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먼저 등교기간에는 학교 또는 보육단체 주관의 단체관람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등교기간보다 관객 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는 즉 어린이공연의 내용, 장르, 원작 유무가 흥행에 미치는 영향은 등교기간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등교기간에는 어린이공연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 5. 어린이공연의 내용과 성과의 관계는 등교여부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6. 어린이공연의 장르와 성과의 관계는 등교여부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7. 어린이공연의 원작 존재 여부와 성과의 관계는 등교여부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3. 실증분석

3.1 자료

본 연구는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판타지아극장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연된 작품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부천문화재단 어린이공연은 전국 문화재단 중 유일하게 운영되는 어린이 상설 공연으로서 지난 2008년 200석 규모의 어린이전용 판타지아극장을 개관하여 관객과 공연자 모두에게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477일(설치 및 철수 기간, 월요일 정기휴관일 제외)동안 진행된 총 37편의 954회 공연으로서 59,239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다.

판타지아극장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부천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날씨나 기온 등의 외부적 요인이

관객 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무료공연에 따른 관람객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무료공연은 제외하였고 모든 공연의 입장료는 동일했다.

3.2 변수와 모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공연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관객 수이다. 공연 성과로는 관객 수와 공연매출, 평문의 호의성이나 수상여부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어린이공연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지 않고 본 연구의 데이터로 사용된 판타지아극장은 수익보다는 시민서비스에 기반을 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상여부가 아닌 관객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의 독립변수로는 공연의 내용인데, 단순 오락성 내용의 '유희적 내용'와 어린이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적 내용', 그리고 권선징악 등의 교훈을 주기 위한 '교훈적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의 독립변수는 공연의 장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극, 음악극, 뮤지컬, 인형극으로 구분하였다. 세 번째의 독립변수는 원작유무로서, 전래동화나 전설 등 기존의 원작을 줄거리로 이용한 '원작물'의 경우와 공연을 위해 스토리와 구성을 새로 창작한 '창작물'경우로 구분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변수로서 '등교기간'과 '미등교기간'으로 구분하였는데, 등교기간은 학기중 주중으로, 미등교기간은 방학과 학기중 주말 기간으로 보았다.

통제변수로서 '극단규모'는 4인 이상 극단과 그 미만의 극단을 구분하여 극단의 역량에 따른 관객수의 변동을 통제하였고, '관객참여' 유무에 관한 변수는 관객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관객이 객석에 앉아서 관람만 하는 경우 단순 관람형 공연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들이 관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3 분석결과

Table 1은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고, Table 2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데 일부 변수들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공선성 진단을 한 결과 공차함계 값이 1.0이하였고 분산팽창요인(VIF)값이 10미만이기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어린이상설공연의 관객 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각 기간별로 관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공연의 특성들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공연의 내용과 장르, 원작물 여부에 관한 독립변수들을 사용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verage	s.d.	N
1. visitors	62.10	56.484	954
2. firm size	.68	.469	954
3. audience participation	.29	.455	954
4. topic_educational	.30	.457	954
5. topic_playful	.17	.376	954
6. topic_didactic	.53	.499	954
7. genre_musical	.24	.427	954
8. genre_puppet play	.35	.477	954
9. genre_musical play	.13	.339	954
10. genre_drama	.28	.449	954
11. original work	.54	.499	954
12. school periods	.44	.497	954

[Table 2] Correlation Matrix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00											
2	.03	1.00										
3	.03	.20***	1.00									
4	.09	.23***	.714***	1.00								
5	.00	-.024	-.073*	-.082*	1.00							
6	-.09	-.307***	-.211***	-.357***	-.261***	1.00						
7	.049*	.389***	-.167***	-.008	.012	-.076*	1.00					
8	.04	-.785***	-.219***	-.245***	.010	.547***	-.411***	1.00				
9	.04	.271***	.336***	.281***	-.096**	-.201***	.219***	-.286***	1.00			
10	-.108**	.262***	.139***	.06	.060	-.238***	.348***	-.456***	-.243***	1.00		
11	.035**	-.487***	-.170***	.223***	-.084*	.403***	.469***	.579***	-.088**	-.572***	1.00	
12	.132***	-.178***	.336***	.377***	.276	.196***	.196***	.243***	-.009	-.231***	.198***	1.00

*p<.05, **p<.01, ***p<.001

공연의 내용에 대한 가설1의 검증결과를 보면 유희적 내용의 공연이 관객 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이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model 1). 또한 공연의 장르에 대한 가설 2의 검증에서도 뮤지컬 공연은 관객 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model 2), 원작물 존재 여부에 대한 가설 3의 검증에서도 원작이 있는 공연은 관객 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model 3). 그러므로 가설 1, 2, 3은 지지되었다. 다만 가설 2의 경우 뮤지컬과 함께 인형극도 관객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델 5에서는 오히려 인형극만이 유의한 변수로

남아있어서 가설 2는 견고하게 지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교기간에 관객 수가 많을 것이라는 가설 4도 지지되었다(model 4).

[Table 3] Regression Results

variable	model 0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constant	60.252*** (3.208)	59.078*** (3.252)	38.462*** (6.679)	45.153*** (4.927)	50.630*** (3.822)	24.494** (7.155)
firm size	.475 (4.360)	-916 (4.678)	10.369 (6.442)	7.975 (4.712)	2.410 (4.337)	10.605 (6.457)
audience participation	5.226 (4.494)	5.022 (5.086)	10.555* (5.070)	8.189 (4.519)	8.158 (4.496)	11.253* (5.436)
topic_educational		.811 (5.524)				8.005 (5.597)
topic_playful		11.365* (5.436)				19.514*** (5.503)
genre_musical			15.674** (5.266)			8.903 (5.755)
genre_puppet play			24.474*** (6.595)			14.990* (7.511)
genre_musical play			9.418 (6.367)			1.746 (6.622)
original work				16.959*** (4.224)		13.088** (5.031)
school periods					16.948*** (3.745)	15.401*** (3.786)
N	954	954	954	954	954	954
R ²	.002	.007	.020	.019	.023	.053
adj R ²	.000	.003	.015	.015	.020	.044
F	.921***	1.731***	3.957***	5.996***	7.451***	5.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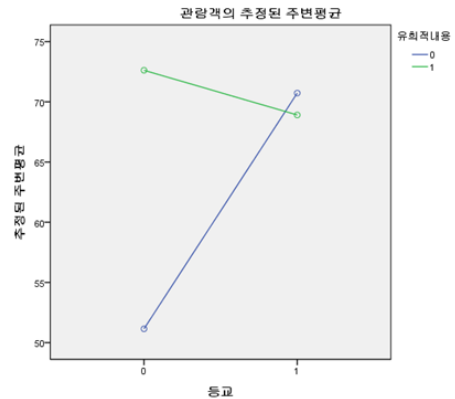
*p<.05, **p<.01, ***p<.001

다음으로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해 가설 1에서 유의하게 판명되었던 유희적 내용을 대상으로 관객 수에 대해 등교 여부와의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유희적 내용과 등교 여부는 유의확률 .021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등교기간에 유희적 내용을 더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5는 지지되었다. 이 결과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Table 4] ANOVA (playful and school period)

variable	Type III SS	F	probability
playful topic	11755.175	3.789	.052
school period	7661.206	2.469	.116
playful topic * school period	16511.037	5.321*	.02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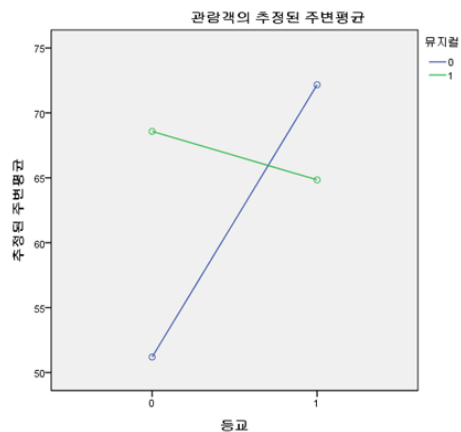
[Fig. 1] Interaction b/t playful and school period

가설 6을 검증하기 위해 가설 2에서 유의하게 판명되었던 뮤지컬 장르를 대상으로 관객 수에 대해 등교 여부와의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뮤지컬 장르와 등교 여부는 유의확률 .004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등교기간에 뮤지컬 장르를 더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6은 지지되었다. 이 결과를 도식화하면 Fig. 2과 같다.

[Table 5] ANOVA (musical and school period)

variable	Type III SS	F	probability
musical genre	4293.386	1.381	.240
school period	12612.839	4.057*	.044
musical genre * school period	25897.859	8.330***	.004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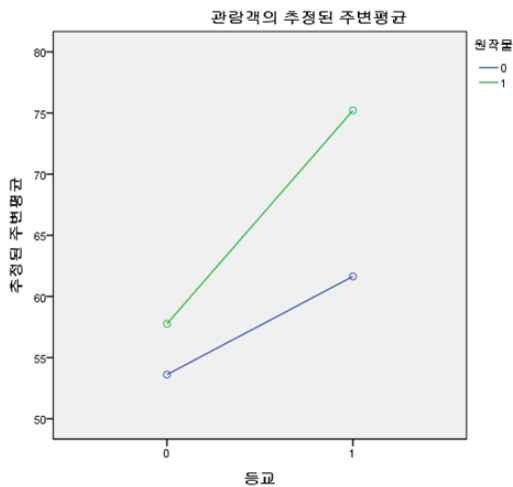
[Fig. 2] Interaction b/t genre and school period

마지막으로 가설 7을 검증하기 위해 가설 4에서 유의하게 판명되었던 원작물 존재 여부를 대상으로 관객 수에 대해 등교 여부와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작물 존재 여부와 등교 여부는 유의확률 .210으로서 관객 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가설 7은 기각되었다. 이 결과를 도식화하면 Fig. 3와 같다.

[Table 6] ANOVA (original and school period)

variable	Type III SS	F	significance probability
original work	17401.075	5.570*	.018
school period	35953.271	11.509**	.001
original work* school period	4918.678	1.575	.210

*p<.05, **p<.01, ***p<.001



[Fig. 3] Interaction b/t original and school period

3. 결론

본 연구는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상설어린이극장의 2010-2011의 자료를 중심으로 어린이공연의 다양한 특성과 기간이 관객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실증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유희적 내용, 뮤지컬 장르, 그리고 원작이 있는 공연이 관객 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인형극 장르 또한 많은 관객 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교기간에 무대에 오른 공연은 미등교기간에 무대에 오른 공연보다 많은 관객을 모은 것

로 나타났는데 이 현상은 앞에서 발견한 유희적 내용, 뮤지컬 장르, 인형극 장르의 경우와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여주었다. 다만 원작이 있는 공연의 경우에는 등교기간 여부와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어린이공연의 실제 구매자가 어린이 당사자가 아닌 성인이고, 특히 등교기간에 부모님보다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교사가 공연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이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대신 구매를 해야 하는 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보다 위험이 적은 공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뮤지컬이나 인형극과 같이 익숙한 장르와 재미가 보장되는 유희적 내용, 동화책이나 만화 등을 통해 익히 내용을 알고 있는 원작 공연의 경우 아이들이 공연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영화 등 문화산업의 흥행요인에 대한 연구를 어린이공연으로 확장하였고 어린이공연의 급속한 성장세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공연시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성인 공연과 달리 어린이공연의 흥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교기간 여부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어린이공연 특유의 흥행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화재단이나 공연장, 어린이전문극단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공연 기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해 부천문화재단의 판타지아 극장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단일 공연장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적 신뢰성이 확보된 반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나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로 공연장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는 어린이공연 자료를 이용하지 못한 단점을 감수하였다. 어린이 공연의 기간과 특성에 대한 모객 요인은 공연장소 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방, 도심으로부터의 접근성 등 다양한 입지의 차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연장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공연의 질적 차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연구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어린이공연은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극단의 수준에 따라 공연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연출과 배우, 음향과 무대가 모두 수준 높게 제작된 공연이 있는가 하면 수준 이하의 극단에 의해 제작된 저급한 공연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관적인 요인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인 다양한 공연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공연의 질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Arts Council Korea, The Art Yearbook - Analysis of 2011 Theater Part, 2012.
- [2] Boa Rhee, "Toward the Establishment of New Strategies for Children and Family Visitor Services and Public Relations", Cultural Economics Journal, 8(1), pp. 25-56, 2005
- [3] Y. S. Hwang, Y. J. Kim, H. J. Shim, "Watching Movies and Re-viewing Movies in a New Media Environment", Korean Communication Journal, 55(2), pp. 128-154, 2011.
- [4] S. A. An, T. J. Kim, "The Determinants of Opening Share and Decay Rate in Motion Pictures", Journal of Korean Marketing Association, 18(3), pp. 1-17, 2004.
- [5] E. H. Choi, Tina Pyo, Y. J. Park, J. K. Yum, "Integrated Study in Critical Components that Lead Korean Movies to Succes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5), pp. 2773-2784, 2009.
- [6] B. S. Jun, Y. J. Choi, "Determinants of Concentr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Film Admissions, 1974~2003", Korean Communication Journal, 49(6), pp. 401-417, 2005.
- [7] S. G. Sim, "The Study on Genre of Children's Drama & Picture Books", A Study on the Korea Children's Literature, 17, pp. 69-103, 2009.
- [8] P. J. Oh, "Historical process of Korean children's theater", A Study on the Korea Children's Literature, 15, pp. 71-94, 2008.
- [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Cultural Policy White Paper 2006", p. 332, 2006
- [10] J. M. Nam, S. E. Yoo, W. S. Lee,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 of Performance Place on the Level of Customers' Satisfaction from Performing Arts for Children", Korean Society of Dance Journal, 27, pp. 31-42, 2012.
- [11] M. K. Jung, "Moral or Amusement? Filmization of Adolescent Literature through 'Emil and the Detectives'", German Language Education, p. 44, 2009.
- [12] C. I. Park, "Analysis the Korea Movie's Success Factors of Comics Published",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Technology, KAIS Spring Conference 2011, Part 2, 2011.
- [13] Y. H. Park,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ilmized Novels : With Special Reference to Filmized Novels since 2000", Public Narration Research, 16, pp. 105-129, 2006.
- [14] C. I. Park, "Analysis the Commercial Success Factors of the One Source Multi-Use Contents",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technology, KAIS Spring Conference 2010, Part 2, 2010.
- [15] L. Y. Sang, J. J. Lee, "A Comparative Study of Week-Weekend Visitor's Motivations to attend Festival -Focus on Muan Lotus Flower Festival ", 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 3(2), pp. 189-208, 2003.
- [16] J. A. Bae, "A Study on Change of Television Watching Pattern in the Age of 5-day working : Focuses on the Impact of Leisure Activities and Weekend TV Watching Patter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pp. 144-165, 2003.
- [17] C. M. Go, H. J. Kim. "Study on the Change of Korean Moviegoer's Attendance Pattern -The change of market share between season and off-season", Cultural Economics Journal, 8(2), pp. 23-56, 2005.

김 태 희(Tae-Hee Kim)

[준회원]



- 2013년 8월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 석사
- 2012년 9월 ~ 현재 : ARTS & GROW 대표

<관심분야>

어린이문화콘텐츠, 예술교육

신 형 덕(Hyung-Deok Shin)

[정회원]



- 2003년 8월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영학박사
- 2003년 8월 ~ 2006년 5월 : 조지메이슨대학교 조교수
- 2006년 9월 ~ 현재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전략경영, 국제경영, 문화예술경영